제 5 강 존재론/형이상학(ontology/metaphysic)

1. 형이상학(존재론)

- 세계의 본성과 세계 속에서의 인간의 위치에 관한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철학의 한 분야
- 존재와 현존을 그 자체로서 연구하는 학문

cf) 자연과학: 존재와 현존을 물리적`화학적`수학적 등등의 대상으로서 다루는 학문

2. 형이상학(존재론)의 구분

일반 형이상학: 존재론, 존재를 존재 그 자체로서 다루는 학문, 아리스토텔레스가 제1철학이라고 불렀던 분야

특수 형이상학: 영혼론(인간 정신이나 마음의 문제를 다룸)

우주론(전체로서의 세계에 관한 문제: 세계는 시공상 시초가 있는가?, 부분과 전체의 문제, 인과의 계열에 관한 문제, 우연성과 필연성의 문제 등을 다룸)

신학: 신의 존재 유무에 관한 문제를 다룸

2. 형이상학의 근본범주들(주요용어들)

* 범주(category): kata+ logos(이성을 통해, 법칙에 관해)

사고의 근본틀(존재자들의 근본존재방식)

1) 형이상학(존재론)의 최고 근본 범주(있음과 없음)

가. 있음과 없음의 구분

- 서양적 사유: Being만이 있고, 없음은 있음의 부정어에 불과하다. 여기에서는 긍정과 부정도 동일하다(이다와 있다의 구분도 없다)
- 한국적 사유: 있음/없음, 이다/아니다, 형용사도 술어이다(아름답다. 빠르다 / is beautiful,run fast)
- 중국적 사유: 有, 無, 空, 虛// 道는 非有非無法也, 태극도설(空): 無極而太極

나. Being의 의미

- 동일성에 대한 지정: I am a student. He is wise.
- 현존에 대한 지정: The book is on the desk.

다. ‘존재’와 ‘존재자’, ‘현존재’에 대한 구분
- 존재: 모든 존재자가 공통적인 것. ‘Being"이라는 술어를 쓸 수 있는 모든 것.
- 존재자: 개별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사물들. ex) 이 사람, 저 개, 이 건물 등등
- 현존재: 자기 자신이 존재함을 알고 있는 존재. 세계-내-존재, 세계에 던져진 존재
오직 현존재만이 존재자와 존재를 구분할 수 있고, 존재가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다.
2) 기본 범주(용어)

(1) generality(universality) vs individuality(particularity)
- 진돗개/풍산개 - 개 - 포유동물 - 동물 - 생물 - 존재/비존재

(2) 유genus/class vs 종species/subclass
- 상대적 관계 개념
- 최고유summum genus: 존재

(3) substance vs accident
- 독립적으로 실존할 수 있는 것//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그것이 존재하기 위해 다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etc
- 그 어떤 것에 의존해서만(관계해서만...) 존재하는 것. 유사어) 속성, 성질, 특성
- 예) 개 vs 색깔, 크기, 모양 등등

(4) essence vs appearance
- 그 어떤 것이 바로 그것이 되기 위해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그것
- 인식주관에게 드러나 확인 가능한 것
- 예1) ‘나는 가수다’에서 ‘가수’란? 현상만 가수인 것과 본질적으로 가수인 것?
※ accident quality vs essential quality
- socrates: ugly, wise, small, fat///이성적 존재, 포유동물, 인격성

(5) concrete individual vs abstract individual
시공적 존재비시공적 존재
소크라테스, 김갑돌, 코끼리, 저 자동차 빨강, 현명함, 큼 등

아리스토텔레스플라톤
실재론(유물론)관념론

※ 보편논쟁: 보편자(명사)의 실재성에 대한 논쟁
nomialism vs realism

(6) necessity vs accident
-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 실체, 본질과 필연성은 항상 같은 개념인가?
예) 인간/개(실체), 인격성/포유동물(본질)
- 실체에 대해 본질은 필연성(반드시 그래야만 함)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런 실체 그런 본질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고(필연적으로 있어야만 함)는 말하기 어렵다.

3. 존재자의 존재방식에 대한 존재론의 입장들

*** 실재(reality)적 존재자:** 인간 의식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는 것.
예) 책상, 나무, 인간 등,
이념(idea)적 존재자: 인간의 의식에 의존하여 존재하는 것. 비시공적인 것.
예) 수, 도형, 논리적 존재자, 본질, 진·선·미 등의 가치

- 실재론: 인간의 의식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입장
1) 소박 실재론: 일상인의 관점.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경험하는 그대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입장
2) 과학적 실재론: 실재하는 것은 물리적 대상들일 뿐이라는 견해
3) 변증법적 유물론: 오직 물질만이 존재한다.
- 관념론: 인간의 의식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입장
1) 주관적 관념론(유아론): 존재는 지각이다. 버클리와 같은 입장
2) 초월적 관념론: 경험계와 관련하여서는 상호주관적으로(인간이라면) 실재하지만, 이러한 주관성을 벗어나서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 칸트
3) 객관적 관념론 또는 절대적 관념론:. 헤겔. 모든 존재는 절대정신(신)의 외화이다. 셸링과 스피

노자도 이와 유사한 형태이다.

- 회의론 또는 불가지론: 결국 우리는 존재 그 자체를 알 수는 없다. 따라서 존재 그 자체가 물질적인 것인지 정신적인 것인지도 구분할 수 없다.

※ 철학자들의 존재론

- 플라톤: 이데아/현상
- 아리스토텔레스: 제 1실체-이데아론에 대한 비판, 존재하는 것은 개별자뿐이다.

개별자는 질료와 형상의 결합체이다. 순수질료로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단, 순수 형상은 있다. 그것이 바로 부동의 원동자이자 신이다.

- 데카르트: 신, 정신, 물질의 3개의 실체가 존재한다.
- 스피노자: 신 만이 존재하고 정신과 물질은 신의 속성이다.
- 라이프니쯔: 다양한 모나드들이 존재한다.
- 칸트: 형이상학은 불가능하다.
- 헤겔: 정신의 역동적 과정만이 존재한다.

4. 정신과 물질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 존재론의 입장들

가. 유심론(spitualism)과 유물론(materialism)

유물론: 물질의 객관성에 기초해서 물질이 의식 주관에 대하여 근원적이며 또한 그 의식을 규정한다는 주장

유심론: 의식주관 내지 의식내용의 독자적 실재성이나 근원성을 주장하는 이론

특히 근대의 유심론은 주관과 객관을 분리시킨 후 객관적 존재의 근원을 주관에 귀속시키는 방식의 유심론(관념론)이 주류를 이룬다.

* **물활론(animism)**: 주로 고대 그리스 철학에 나타나며, 물질 자체가 생명과 구분되지 않는 특성

(생명성)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관점. 현대에는 가이아 이론이 여기에 해당

*** 현대 사상의 동향:**

영미 - 대체로 유물론에 토대를 두고(과학적 실재론) 그 안에서 기계론(mechanism)과 역동론(dynamism)이 나누어진다.

대륙 - 심신, 물질과 정신 등의 이분법을 부정한다. 동양사상도 이와 유사하다.

예) Geist/Koerper/Leib, 마음/몸/살, 스피노자의 범신론이나 동양의 이기론

나. 물질과 생명에는 원리적인 차이가 있는가? - 기계론과 생기론

생기론(vitalism): 물질적 과정과 생명의 과정에는 원리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

-물질적 과정: 외적 원인만을 인정(관성), 생명의 과정: 내적 원인을 인정(개체성, 항상성, 신진대사, 적응-능동적 반응, 자기 통제, 유전성, 도태, 진화, 합목적성 등등)

기계론(mechanism)

고전적 기계론: 세계기계론. 세계는 단순한 원리와 재료로 만들어졌다. 라플라스의 악마, 시계공의 비유. 데모크리투스, 데카르트, 라메트리 등

현대적 기계론: 기능주의(비환원론적 유물론), 수반론, 환원주의

다. 영혼(정신)의 존재방식을 기준으로 한 입장들

실체설: 영혼이 다양한 심리현상을 지배하는 영구불변의 실체라는 입장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작용설: 영혼이란 심리적 현상들의 총합에 불과하다는 주장

칸트, 스피노자, 흄 등

전체설: 물질과 정신(영혼)의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인간'을 중심으로 사유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은 유기적 생명과 무기적 물질을 토대로 하는 전체로 간주된다.

셸링-"정신은 보이지 않는 자연이고, 자연은 눈에 보이는 정신이다"

5. 심신이론: 몸과 마음은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가?

가. 심신평행설(병행론)

몸과 마음은 아무런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다만 정확하게 일치해서 물적 과정과 심적 과정이

병행하여 발생한다.

- 스피노자의 심신론: “관념들의 질서와 결합은 사물들의 질서와 결합과 동일하다.” “마치 조절된 두 개의 시계처럼 심신 두 계열은 서로 독립적인 과정을 취하면서 병행하도록 태초에 하나님이 예정조화로서 창조했다.”

- 말브랑슈의 기회원인론: 신은 모든 인간들의 모든 순간의 모든 심적 활동에 맞추어 물적 과정에 개입한다.

나. 심신 상호작용설

몸과 마음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서로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즉 물리적 과정의 인과성이 정신적 과정의 인과성에도 적용되고 그 역도 성립한다는 주장.

- 데카르트: 송과선을 매개로 심신 상호작용설을 설명하였다.

비판-질적으로 상이한 것들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가?

열역학 제 1 법칙(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위배됨

다. 심신 동일론

유물론적 관점에서 정신적 과정은 모두 물질적 과정으로 환원된다는 주장

- 환원주의(논리적 행동주의자들의 입장)

- 존재론적 일원론이면서 동시에 속성 이원론을 주장

문제점: 인간 정신의 자율성에 대한 설명이 미흡

속성이원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불투명하다. 심신 병행론과의 차이점은?

라. 비환원적 유물론

기능주의, 수반론 등이 여기에 해당함. 정신 현상을 물적 과정의 기능으로 설명하거나 부수적인 현상으로 설명하면서도 정신 현상이 물적 과정과 동일시 될 수는 없다는 입장.